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 조사*

이 해 원**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가형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전체를 표본으로 국내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노화사실 인지척도를 사용하여 이들의 노화사실에 관한 인지정도를 측정하고, 윤진(1988)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은 71.6%이며, 수집된 자료 129부는 주로 티검증(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① 노화사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정도는 65.3%로서 간호사(65.0%)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②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평균 65.5점으로 산술적으로 중간인 63.0점(최하 $1 \times 21 = 21$ 점과 최고 $5 \times 21 = 105$ 점)보다 약간 긍정적이며, 대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간호사의 부정적인 태도와는 차이가 있었다. ③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p < 0.001$), 노인과 동거경험($p < 0.001$),

* 이 연구는 성공회대학교 한국사회문화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p < 0.05$)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9년 현재 320만 4,000명으로서 전체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7.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 1999: 3). UN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를 맞이하게 된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증가하는 요보호노인(치매노인, 중풍노인, 누워지내는 노인)과 장애노인의 장기적인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더구나 핵가족화, 여성 취업의 증가, 수발가족의 질병이나 출장 등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 전적으로 노인을 수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을 지지·보충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1997년에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치매 등 만성중증 노인질환을 위한 전문요양서비스의 확충, 시설노인복지서비스의 행정체계 개편,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정봉사원파견 및 양성교육사업·주간보호사업·단기보호사업)의 활성화 등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1999년 현재 전문요양시설 13개소, 양로시설 104개소, 요양시설 77개소, 가정봉사원파견시설 74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286개소, 노인종합복지관 9개소, 서울시 가정도우미팀 운영센터 107개소, 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15개소, 주간보호시설 37개소, 단기보호시설 19개소 등에서 약 1,440명의 사회복지사가 간호사, 물리치료사, 가정봉사원 등 노인복지관련 인력과 함께 해당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1999;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1999).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효과성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노인복지 인력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태도는 사람이나 사물·사상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며, 그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노인에 대한 의사·간호사의 부정적 편견은 서구사회에서는 일반적이며, 국내에서도

간호사의 부정적 태도가 보고되고 있다(Tuckman & Lorge, 1953; Garfinkel, 1975; 김매자, 1978; 송미순, 1984).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가운데, Calnan과 Hanron(1970)은 간호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Campbell(1971)과 Benson(1982)은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가 노인 환자가 제공받는 간호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간호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 및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선행연구는 다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는 국내·외에서 아직 한 편도 없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노인복지관련 인력 가운데 누구보다도 클라이언트인 노인의 욕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사정·평가하고, 노인의 입장에서 간호사·가정봉사원 등 노인복지관련 인력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 및 노인에 대한 태도 측정은 앞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적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 및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의 고찰

1) 노화사실 인지정도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노화사실 인지정도란 인간의 노화(aging)에 관한 사실(facts)을 실제로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인간의 노화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노인의 가족 구성원, 노인을 위한 서비스 종사자, 즉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간호사·가정봉사원 등 노인복지관련 인력에게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노화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와 같은 지식과 이해에 바탕을 두고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만이 노인의 욕구 충족에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노화사실 인지정도 측정에 관한 최초의 선행연구는 Tuckman과 Lorge(1953)의 연구로서, 노화사실 인지정도 및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13개 영역 100개

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척도는 문항수가 너무 많고, 노화에 대한 사실과 태도를 혼동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Palmore(1977)는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노화사실 인지척도'(Facts on Aging Quiz)를 개발하여, 개인이 노화에 관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본과정에 대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 노화 및 노인에 대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갖는 오해(misconceptions)가 어떤 측면에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미국 간호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를 측정한 Palmore(1980)의 연구에서는 평균 정답률이 62.0%로 나타났다. 한편 Miller와 Dodder(1980)는 Palmore(1977)의 척도를 보완하여 'FAQ 수정판'으로 재구성하였다. 즉 각 문항의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고, 부정적 문항과 긍정적 문항의 수를 동일하게 하였으며, 응답 선택에 있어서 '그렇다'와 '아니다'의 양분법에 '모르겠다'를 추가하였다.

한편 윤진, 조석미(1982)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노화사실 인지정도에 대한 교육측, 정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Palmore(1977)의 척도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24개 문항의 '경산 노화사실 인지척도'로 재구성하였다. 이들의 척도에 의하여 대학생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정답률은 52.8%로 낮게 나타났다.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송미순(1984)과 손주은(1989)의 연구에서는 평균 정답률이 각각 65.0%와 58.8%로 나타나 우리나라 간호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가 대학생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연구 결과의 평균은 61.9%로서 Palmore(1980)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미국 간호사의 평균 정답률(62.0%)과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노인에 대한 태도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노인에 대한 태도 측정 연구는 국내에서보다 미국을 비롯한 국외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Tuckman과 Lorge(1953)에 의하여 보고된 노인에 대한 서구사회의 보편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정도를 보다 객관적이며 실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측정도구로서 Tuckman과 Lorge(1953)의 척도를 보완하여 Kogan(1961)은 17개의 긍정적 문항과 17개의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된 '노인태도척도'(The Attitude Toward Old People Scale)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노인에 대

한 태도를 다차원이 아닌 단일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척도간의 상관관계 범위가 매우 넓게 퍼져있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Kilty와 Feld(1976)는 노인에 대한 태도측정에 요인분석방법을 적용하여 4개 요인별 45개 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한편 일본의 前田大作(1983)는 3세대간의 심리적 역동관계 및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방법에 따라 3개 요인별 8개 문항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미국의 자료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윤진(1988)이 요인분석방법에 의하여 5개 요인별 24개 문항의 노인태도 척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척도에 의하여 측정된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의 대부분은 조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과 대학생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Spence(1968)와 Garfinkel(1975)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매우 부정적이며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과 학생이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alnan과 Hanron(1970), Campbell(1971), Rankin과 Burggraff(1983)의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심지어 Campbell(1971)의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이 월급이나 다른 조건이 더 좋더라도 노인환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인 전문간호사(*Geriatric Nurse Specialist*)를 대상으로 한 Benson(1982)의 연구 결과만이 중도에 긍정적인 방향의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국내의 간호학과 학생이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매자(1978), 김은일(1982), 송미순(1984), 유지수 외(1991)의 연구 결과 역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최경옥(1976)의 연구 결과만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참고로 일본의 청장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前田大作(1979)와 保坂久美子 외(1988)의 연구 결과도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中野い<子(1991)와 冷水豊 外(1993)의 연구 결과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화사실 인지정도, 교육정도, 연령, 간호사 근무경력, 노인과의 개인적인 경험 등이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서로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우선 Calnan과 Hanron(1970), Campbell(1971), 최경옥(1976)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의 정도가 적었으나, 송미순(1984)의 연구에서는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교육정도에 따른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Campbell(1971)의 연구에서는 간호

사의 연령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송미순(1984)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연령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Gillis(1973)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일본의 청장년을 대상으로 한 前田大作(1979)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Gillis(1973)와 송미순(1984)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근무경력이 9년 이상이 되면 부정적인 태도에서 점차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었으나, 최경옥(1976)의 연구에서는 근무경력에 따른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Campbell(1971), 최경옥(1976), 김매자(1978), 송미순(1984)의 연구에서는 노인과의 개인적 경험에 따른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中野いづ子(1991)와 冷水豊外(1993)의 연구에서는 노인과의 개인적 경험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3. 연구방법

1) 연구문제와 가설 설정

앞에서 제시한 연구목적과 선행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연구문제 1. 노화사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정도는 어떠한가?
- (2) 연구문제 2.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가?
- (3) 연구문제 3.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특히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이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노화사실 인지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②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③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노인과 동거경험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④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⑤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노인복지 과목이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⑥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노인대상 실습이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⑦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이며, 독립변수는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인지척도의 점수) · 연령 · 노인과 동거경험 · 노인복지 업무 담당기간 · 노인복지 과목이수 · 노인대상 실습이수 ·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이다.

2) 조사도구 및 조사방법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사항 12문항, 노화사실 인지척도 24문항,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노화사실 인지척도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윤진, 조석미(1982)의 '경산 노화사실 인지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Palmore(1977)의 25개 문항 척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24개 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노화사실의 신체적 영역(9개 문항) · 심리적 영역(9개 문항) · 사회적 영역(6개 문항)으로 구분되어 서술되어 있다. 응답자가 각 서술문항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에는 '그렇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르겠다'에 'V'로 기재한 후, 전체 응답 가운데 정답에만 점수를 주어 노화사실에 대한 인지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따라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사실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과학적 사실로 밝혀진 노화

에 관하여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 확실하며, 윤진, 조석미(1982), 송미순(1984), 손주은(1989), 유지수 외(1991)의 연구 등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척도는, 노인인구의 변화에 따라, 윤진, 조석미(1982)의 척도와 비교하여 23번 문항의 서술내용이 수정되었으며, 17번과 24번 문항의 정답이 수정되었다(〈표 3〉 참조).

(2)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는 윤진(198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50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가 낮은 3개 문항을 제외하고 21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척도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10명의 자문을 받았다. 이 척도는 자녀·가족관계, 행동특성, 능력감퇴경향, 사회적 유리경향 및 일상생활관련 변인 등 4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역문항은 역산되었다. 따라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하위 영역별로 분석하면 자녀·가족관계 영역은 .62, 행동특성 영역은 .75, 능력감퇴경향 영역은 .67, 그리고 사회적 유리경향 및 일상생활관련 영역은 .67이다(〈표 1〉 참조).

(3) 조사방법

이 조사는 1999년 6월 22일~7월 23일에 전국 73개의 가형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자기 기입식 설문지 183부를 우편으로 우송한 결과, 총 131부가 수집되어 71.6%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들 가운데 자료처리 과정에서 무응답 항목이 많은 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29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독립변수간의 범주집단간 평균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티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표 1〉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 척도의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 번호 및 내용	신뢰도
자녀 - 가족관계	*25.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게 될 경우, 여러가지 면에서 조화되기 어렵다. 26. 노인들은 집안 일에 대해 여러가지 도움을 준다. 27. 노부모는 자녀들의 부부싸움이나 의견 대립을 해결하는 중재자가 된다. 28. 노인들은 어린아이를 좋아한다. 29. 노인들은 자신에 대해서보다는 자녀 걱정을 더 많이 한다. 30.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집안은 화목하다.	.62
행동특성	*31. 노인들은 20세 전후의 젊은 세대가 하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32. 사람은 늙어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아진다. *33. 노인들은 자신의 오래된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 *34. 노인들은 새로운 생활용품보다 옛날부터 쓰던 물건을 계속 쓰려고 한다. *35. 노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거기에 집착한다. *36. 대부분의 노인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어렵다.	.75
능력감퇴 경향	*37. 노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기이다. *38.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능력이 떨어져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39. 노인들은 대체로 성생활을 할 능력이 없다.	.67
사회적 유리경향 및 일상생활 관련	*40. 노인이 되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41. 노인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42. 정년 퇴직과 더불어 적극적인 사회활동은 끝나게 된다. *43. 노인들은 외롭다. *44. 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집안에서 하루를 보낸다. *45.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다.	.67
전 체	25~45	.82

주 : *표시된 문항은 역문항이다.

3) 표본의 특성

이 조사의 표본인 종합사회복지관(가형)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사의 특성을 근무지역(기관 소재지),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 노인복지 과목이수, 노인대상 실습이수,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노인(조부모·부모·시부모)과의 동거경험, 노인복지 업무 담당기간, 노인복지 업무 희망여부 등을 통하여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는 도시(98.5%)에 소재한 종합사회복지관(가형)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균 29.2세의 사회복지사로서 51.2%가 여성이며, 62.0%가 미

혼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92.2%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90.7%가 노인복지론 등 노인복지 과목을 이수하였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51.9%만이 노인대상 사회복지실습을 이수하였으며, 56.6%가 노인대상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표 2〉 조사대상 사회복지사의 특성

변 수	구 분					계		
	백분율(빈 도)					백분율 (빈도)		
근무 지역 (기관소재지)	대도시 75.2(97)	중소도시 23.3(30)	농·어촌지역 1.6(2)			100.0 (129)		
성 별	여성 51.2(66)		남성 48.8(63)			100.0 (129)		
연 령	21세~25세 26.4(34)	26세~30세 51.1(66)	31세~35세 15.5(20)	36세 이상 5.4(7)	무응답 1.6(2)	100.0 (129)		
결혼상태	미혼 62.0(80)			기혼 38.0(49)		100.0 (129)		
학 령	대학원 졸업 6.2(8)	4년제 대학 졸업 86.0(111)		전문대학 졸업 7.8(10)		100.0 (129)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자격증 있음 90.7(117)	2급 자격증 있음 7.8(10)		3급 자격증 있음 1.6(2)		100.0 (129)		
노인복지 과목이수	이수하였음 90.7(117)			이수하지 않았음 9.3(12)		100.0 (129)		
노인대상 실습이수	이수하였음 51.9(67)		이수하지 않았음 47.3(61)		무응답 0.8(1)	100.0 (129)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	경험 있음 56.6(73)		경험 없음 42.6(55)		무응답 0.8(1)	100.0 (129)		
노인과 동거경험	경험 있음 69.0(89)			경험 없음 31.0(40)		100.0 (129)		
노인복지 업무 담당기간	1년미만 34.9(45)	1~2년미만 24.8(32)	2~3년미만 14.0(18)	3~4년미만 10.1(13)	4~5년미만 6.2(8)	5년이상 6.2(8)	무응답 3.9(5)	100.0 (129)
노인복지 업무 희망여부	희망함 56.6(73)	고려함 28.7(37)		희망하지 않음 12.4(16)		무응답 2.3(3)	100.0 (129)	

의 69.0%가 가족 구성원(조부모·부모·시부모)으로서의 노인과 살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이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1년 미만(34.9%), 1년~2년 미만(24.8%), 2년~3년 미만(14.0%), 3년~4년 미만(10.1%), 4년 이상(12.4%)으로 나타나 이들의 노인복지 업무 담당기간이 비교적 짧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56.6%만이 노인복지 업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분석

앞 장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이 조사의 연구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노화사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정도

노화사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4개 문항별 응답률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사회복지사의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 정답률은 65.3%로서 미국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lmer(1980)의 연구결과인 62.0%보다 3.3% 더 높은 수준이며, 한국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송미순(1984)의 연구결과인 65.0%보다 0.3%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균 정답률이 75.0% 이상인 사회복지사는 전체 응답자의 23.3%이며, 50.0% 이하인 사회복지사는 전체 응답자의 12.4%이다(<표 4> 참조).

한편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에 대한 인지정도를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영역별로 살펴보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76.9%, 68.9%, 51.6%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적 영역이 가장 높고, 사회적 영역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정답률 90.0% 이상을 나타낸 문항은 신체적 영역의 '노년기에 이르면 신체의 다섯 가지 감각(시각·청각·촉각·후각·미각)은 그 기능이 감퇴한다'(97.7%), '노년기에 이르면 육체적인 힘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95.3%), '노인이 되면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92.2%)와 사회적 영역의 '노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92.2%)의 순이다. 반면에 정답률 30.0% 이하를 나타낸 문항은 사회적 영역의 '노인들은 진정한 노인 생활이 환갑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14.7%), '199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다'(17.1%), '1999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은 약 70세로 추정되고 있다'(19.4%)와 심리적 영역의 '노인들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종교를 믿으려는 경향이 늘어난다'(20.9%)이다.

〈표 3〉 노화사실 인지 문항별 사회복지사의 응답률 분포

영역	문항	정답 (%)	오답 (%)	모르겠다 (%)	
신체적 영역	1. 노년기에 이르면 신체의 다섯 가지 감각(시각·청각·촉각·후각·미각)은 그 기능이 감퇴한다.	O	97.7	1.6	0.8
	2. 노인들의 50% 이상은 노쇠하여 기억장애·방향감각장애·정신장애 등을 나타낸다.	X	42.6	54.3	3.1
	3. 노인들의 50% 이상은 성(性)생활을 할 능력이 없다.	X	75.2	16.3	8.5
	4. 노년기에 이르면 폐(肺) 기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O	79.1	12.4	8.5
	5. 노년기에 이르면 육체적인 힘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O	95.3	3.9	0.8
	6. 나이 많은 근로자들은 젊은 근로자들보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X	60.5	31.0	8.5
	7. 나이 많은 근로자들은 젊은 근로자들보다 직장에서 더 많은 사고를 일으켜 산업재해를 당한다.	X	78.3	7.8	14.0
	8. 노인이 되면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O	92.2	4.7	3.1
	9. 노인들은 젊은이보다 자극(예: 빨간 신호등)에 대하여 더 느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O	71.3	19.4	9.3
신체적 영역 인지(1~9)			76.9	16.8	6.3
심리적 영역	10. 노인들 대부분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X	80.6	14.7	4.7
	11. 인간의 신체적·심리적 발달이나 변화는 출생에서 시작되어 성년기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O	85.3	10.9	3.9
	12. 노인들의 50% 이상이 자신이 노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X	69.8	17.1	13.2
	13. 노인들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종교를 믿으려는 경향이 늘어난다.	X	20.9	64.3	14.7
	14. 노인들은 자녀나 가족보다 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X	84.5	5.4	10.1
	15. 노인들은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결혼하여 자녀들을 키울 때까지보다는 자녀들이 다 자란 후라고 생각한다.	X	69.8	7.8	22.5
심리적 영역 인지(10~15)			68.9	20.0	11.5

〈표 3〉 계속

영역	문항	정답 (%)	오답 (%)	모르겠다 (%)	
사회적 영역	16. 노인들은 진정한 노인 생활이 환갑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	O	14.7	53.5	31.8
	17. 노인들의 80% 이상이 자녀들과의 동거를 희망한다.	X	51.2	33.3	15.5
	18. 노인들의 50% 정도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	X	55.8	28.7	15.5
	19.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 가운데 50% 이상의 노인들이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O	86.8	4.7	8.5
	20. 노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O	92.2	4.7	3.1
	21. 노인들의 50% 이상이 자기 집안 일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O	48.1	32.6	19.4
	22. 21세기가 되어도 (젊은이와 비교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마 현재와 거의 같을 것이다.	X	79.1	17.8	3.1
	23. 199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 이상을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X	17.1	72.9	10.1
	24. 1999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은 약 70세로 추정되고 있다.	X	19.4	73.6	7.0
		사회적 영역 인지(16~24)		51.6	35.8
	노화사실 인지 전체(1~24)		65.3	24.7	10.0

〈표 4〉 노화사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정도

노화사실 인지정도		빈도	백분율(%)
정답 문항 수	정답률(%)		
8개~12개	50% 이하	16	12.4
13개~17개	51%~74%	83	64.3
18개~21개	75% 이상	30	23.3
합계		129	100.0

2)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1개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분석하면, 다음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의 전체 평균은 3.1점으로서 105.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5.5점이다. 한편 이 연구의 척도는 최하

<표 5>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

하위 영역	문항 번호 및 내용	평균 점수
자녀- 가족관계	*25. 노인이 자녀와 동거할 경우, 여러가지 면에서 조화되기 어렵다.	3.60(75.6점)
	26. 노인들은 집안일에 대해 여러가지 도움을 준다.	4.14(86.9점)
	27. 노부모는 자녀의 부부싸움이나 의견 대립을 해결하는 중재자가 된다.	3.86(81.1점)
	28. 노인들은 어린아이를 좋아한다.	4.52(94.9점)
	29. 노인들은 자신에 대해서보다는 자녀 걱정을 더 많이 한다.	4.64(97.4점)
	30.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집안은 화목하다.	3.74(78.5점)
	25~30	4.08(85.7점)
행동특성	*31. 노인들은 젊은 세대가 하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2.54(53.3점)
	*32. 사람은 늙어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아진다.	1.88(39.5점)
	*33. 노인들은 자신의 오래된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	1.76(37.0점)
	*34. 노인들은 새로운 물건보다 옛날부터 쓰던 물건을 계속 쓰려고 한다.	1.81(38.0점)
	*35. 노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거기에 집착한다.	1.97(41.4점)
	*36. 대부분의 노인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어렵다.	2.56(53.8점)
31~36	2.08(43.7점)	
능력감퇴	*37. 노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기이다.	3.49(73.3점)
	*38.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능력이 떨어져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3.60(75.6점)
	*39. 노인들은 대체로 성생활을 할 능력이 없다.	3.75(78.8점)
37~39	3.61(75.8점)	
사회적 소외 및 일상생활 관련	*40. 노인이 되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2.19(46.0점)
	*41. 노인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3.75(78.8점)
	*42. 정년 퇴직과 더불어 적극적인 사회활동은 끝나게 된다.	3.64(76.4점)
	*43. 노인들은 외롭다.	2.29(48.1점)
	*44. 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집안에서 하루를 보낸다.	2.98(62.6점)
45.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다.	2.88(60.5점)	
40~45	2.95(62.0점)	
전 체	25~45	3.12(65.5점)

21.0(1.0×21)점에서 최고 105.0(5.0×21)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산술적 중간은 63.0점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부정적·긍정적 태도의 중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의 선행연구(Calnan & Hanron, 1970; Campbell, 1971; Rankin & Burggraff, 1983; 김매자, 1978; 송미순, 1984) 결과는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 영역별 평균 점수를 높은 순서로 열거하면, ① 자녀·가족 관계 영역 85.7점, ② 능력감퇴 영역 75.8점, ③ 사회적 소외 및 일상생활관련 영역 62.0점, ④ 행동특성 영역 43.7점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사는 노인의 자녀·가족관계와 능력감퇴 영역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노인의 사회적 소외 및 일상생활관련 영역에 대하여 중도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진 태도를 나타내며, 노인의 행동특성 영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노인의 자녀·가족관계 영역과 행동특성 영역에 대하여 상반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전체 문항 가운데 80.0점 이상의 매우 긍정적인 태도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자녀·가족관계 영역의 ‘노인들은 자신에 대해서보다는 자녀 걱정을 더 많이 한다’(97.4점), ‘노인들은 어린아이를 좋아한다’(94.9점), ‘노인들은 집안 일에 대해 여러가지 도움을 준다’(86.9점), ‘노부모는 자녀의 부부싸움이나 의견 대립을 해결하는 중재자가 된다’(81.1점)의 순이다. 한편 40.0점 이하의 매우 부정적인 태도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행동특성 영역의 ‘노인들은 새로운 물건보다 옛날부터 쓰던 물건을 계속 쓰려고 한다’(37.0점), ‘노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거기에 집착한다’(38.0점), ‘노인들은 자신의 오래된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39.5점)이다. 이로써 사회복지사는 노인의 자녀·가족관계 영역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노인의 행동특성 영역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설 검증 :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별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 분석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별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 영역 가운데, 특히 능력감퇴 영역은 $p < 0.001$ 유의수

준에서, 그리고 자녀·가족관계 영역과 사회적 소외·일상생활관련 영역은 각각 $p < 0.0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태도 차이를 나타냈다. 실제로 18개 이상의 정답을 표시한 사회복지사(태도 평균 69.7점)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나, 12개 이하의 정답을 표시한 사회복지사(태도 평균 58.8점)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다시 말하면, 노화사실 인지도가 높은 사회복지사가 노화사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복지사보다 노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이는 Calnan과 Hanron(1970), Campbell(1971), 최경옥(1976)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이를 통하여 이 연구의 가설 1(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노화사실 인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지지되었다.

〈표 6〉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별 노인에 대한 태도

종속변수 (노인에 대한 태도)	노화사실 인지정도별 평균 (노화 사실인지 정답 문항 수)			F
	8개~12개	13~17개	18개 이상	
태도 1 : 자녀·가족관계	3.82 (80.2점)	4.08 (85.7점)	4.23 (88.8점)	3.36*
태도 2 : 행동특성	1.94 (40.7점)	2.07 (43.5점)	2.22 (46.6점)	1.36
태도 3 : 능력감퇴	2.73 (57.3점)	3.65 (76.7점)	4.00 (84.0점)	14.43***
태도 4 : 사회적 소외·일상생활관련	2.68 (56.3점)	2.94 (61.7점)	3.16 (66.4점)	3.15*
전체 태도 : 태도 1~4	2.80 (58.8점)	3.12 (65.5점)	3.32 (69.7점)	7.94***

주 :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7〉 사회복지사의 연령별 노인에 대한 태도

종속변수 (노인에 대한 태도)	연령별 평균				F
	21세~25세	26세~30세	31세~35세	36세 이상	
태도 1 : 자녀·가족관계	4.08 (85.7점)	4.09 (85.9점)	4.07 (85.5점)	3.90 (81.9점)	1.06
태도 2 : 행동특성	2.15 (45.2점)	2.05 (43.1점)	2.13 (44.7점)	1.81 (38.0점)	.98
태도 3 : 능력감퇴	3.78 (79.4점)	3.59 (75.4점)	3.53 (74.1점)	3.14 (65.9점)	1.17
태도 4 : 사회적 소외·일상생활관련	3.03 (63.6점)	2.96 (62.2점)	2.74 (57.5점)	3.12 (65.5점)	.95
전체 태도 : 태도 1~4	3.19 (67.0점)	3.11 (65.3점)	3.06 (64.3점)	2.97 (62.4점)	1.20

주 :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8〉 사회복지사의 노인과 동거경험 유무별 노인에 대한 태도

종속변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과 동거경험 유무별 평균		t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태도 1 : 자녀·가족관계	4.16(87.4점)	3.93(82.5점)	2.40**
태도 2 : 행동특성	2.14(44.9점)	1.96(41.2점)	1.69
태도 3 : 능력감퇴	3.78(79.4점)	3.26(68.5점)	3.33***
태도 4 : 사회적 소외·일상생활관련	3.05(64.1점)	2.76(58.0점)	2.41**
전체 태도 : 태도 1~4	3.21(67.4점)	2.93(61.5점)	3.42***

주 : * $p < 0.05$, ** $p < 0.01$, *** $p < 0.001$

(2) 사회복지사의 연령별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 분석

사회복지사의 연령별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21세~25세인 사회복지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태도보다 약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Gillis(1973)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설 2(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3) 사회복지사의 노인과 동거경험 유무별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 분석

사회복지사의 노인과 동거경험 유무별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 영역 가운데, 능력감퇴 영역은 $p < 0.001$ 유의 수준에서, 그리고 자녀·가족관계 영역과 사회적 소외·일상생활관련 영역은 각각 $p < 0.0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태도 차이를 나타냈다. 즉 노인과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태도 평균 67.4점)가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회복지사(태도 평균 61.5점)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는 中野い<子(1991)와 冷水豊 外(1993)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설 3(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노인과 동거경험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지지되었다.

(4) 사회복지사의 노인복지업무 담당기간별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 분석

사회복지사의 노인복지업무 담당기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평균 점수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년 미만(67.2점)이 1년~2년 미만(66.2점)·2년~3년 미만

〈표 9〉 사회복지사의 노인복지 업무 담당기간별 노인에 대한 태도

종속변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복지 업무 담당기간별 평균						F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년 이상	
태도 1 : 자녀·가족 관계	4.08 (85.7점)	4.19 (88.0점)	4.06 (85.3점)	3.99 (83.8점)	3.90 (81.9점)	3.98 (83.6점)	.63
태도 2 : 행동특성	2.15 (45.2점)	2.11 (44.3점)	2.05 (43.1점)	2.01 (42.2점)	1.94 (40.7점)	1.63 (34.2점)	1.84
태도 3 : 능력감퇴	3.79 (79.6점)	3.51 (73.7점)	3.61 (75.8점)	3.08 (64.7점)	3.71 (77.9점)	3.75 (78.8점)	1.38
태도 4 : 사회적 소외·일 상생활관련	3.08 (64.7점)	2.98 (62.6점)	2.77 (58.2점)	2.81 (59.0점)	2.96 (62.2점)	2.77 (58.2점)	.08
전체 태도 : 태도1~4	3.20 (67.2점)	3.15 (66.2점)	3.05 (64.1점)	2.96 (62.2점)	3.04 (63.8점)	2.93 (61.5점)	1.28

주 : * $p < 0.05$, ** $p < 0.01$, *** $p < 0.001$

(64.1점)·4년~5년 미만(63.8점)·3년~4년 미만(62.2점)·5년 이상(61.5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최경옥(1976)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설 4(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5) 사회복지사의 노인복지 과목이수 여부별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 분석

사회복지사의 노인복지 과목이수 여부별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노인복지 과목을 이수한 사회복지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평균 65.7점)가 노인복지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들의 태도(평균 64.3점)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90.7%가 노인복지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양 집단간의 태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설 5(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노인복지 과목이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6) 사회복지사의 노인대상 실습이수 여부별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 분석

사회복지사의 노인대상실습이수 여부별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표 10〉 사회복지사의 노인복지 과목이수 여부별 노인에 대한 태도

종속변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복지 과목이수 여부별 평균		t
	이수하였음	이수하지 않았음	
태도 1 : 자녀·가족관계	4.07 (85.5점)	4.24 (89.0점)	-1.08
태도 2 : 행동특성	2.10 (44.1점)	1.93 (40.5점)	.98
태도 3 : 능력감퇴	3.62 (76.0점)	3.58 (75.2점)	.14
태도 4 : 사회적 소외·일상생활관련	2.98 (62.6점)	2.76 (58.0점)	1.10
전체 태도 : 태도 1~4	3.13 (65.7점)	3.06 (64.3점)	.50

주 :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11〉 사회복지사의 노인대상 실습이수 여부별 노인에 대한 태도

종속변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대상 실습이수 여부별 평균		t
	이수하였음	이수하지 않았음	
태도 1 : 자녀·가족관계	4.10 (86.1점)	4.07 (85.5점)	.31
태도 2 : 행동특성	2.08 (43.7점)	2.11 (44.3점)	-.24
태도 3 : 능력감퇴	3.64 (76.4점)	3.62 (76.0점)	.17
태도 4 : 사회적 소외·일상생활관련	3.01 (63.2점)	2.93 (61.5점)	.70
전체 태도 : 태도 1~4	3.25 (66.2점)	3.12 (65.5점)	.35

주 : * $p < 0.05$, ** $p < 0.01$, *** $p < 0.001$

11)과 같다. 노인대상 사회복지실습을 이수한 사회복지사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평균 66.2점)가 노인대상 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들의 태도(평균 65.5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노인대상 실습교육의 제한점과 관련된 현상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설 6(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노인대상 실습이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기각되었다.

(7) 사회복지사의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 유무별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 분석

사회복지사의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 유무별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의 사회적 소외·일상생활관련 영역에 있어서 $p <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경험한 사회복지사가 노인대상 자원봉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보다 노인의 사회

〈표 12〉 사회복지사의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 유무별 노인에 대한 태도

종속변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 유무별 평균		t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태도 1 : 자녀·가족관계	4.13 (86.7점)	4.02 (84.4점)	1.10
태도 2 : 행동특성	2.13 (44.7점)	2.05 (43.1점)	.78
태도 3 : 능력감퇴	3.70 (77.7점)	3.52 (73.9점)	1.18
태도 4 : 사회적 소외·일상생활관련	3.08 (64.7점)	2.82 (59.2점)	2.28*
전체 태도 : 태도 1~4	3.19 (67.0점)	3.04 (63.8점)	1.95*

주 : * $p < 0.05$, ** $p < 0.01$, *** $p < 0.001$

적 소외 및 일상생활관련 영역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이로써 이 연구의 가설 7(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지지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가형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전체를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경산 노화사실 인지척도'를 사용하여 이들의 노화사실에 관한 인지정도를 측정하고, 윤진(1988)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 및 가설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화사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정도는 65.3%로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던 간호사 대상의 선행연구 결과(65.0%)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평균 65.5점으로서 중간 점수(63.0점)보다 약간 높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던 선행연구 결과에

서 나타난 간호사의 부정적인 태도와는 차이가 있었다.

셋째,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화사실 인지정도, 노인과의 동거경험,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노화사실 인지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 ②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③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노인과 동거경험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노인과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노인과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회복지사보다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 ④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⑤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노인복지 과목이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⑥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노인대상 실습이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⑦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노인대상 자원봉사를 경험한 사회복지사가 노인대상 자원봉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보다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2) 실천적 함의

이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를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이 조사 결과에서 사회복지사

의 취약 부분으로 나타난 심리적·사회적 노화 영역에 관한 교육을 실무지향의 방법으로 보완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및 사회복지사에게 노인과 살아본 경험과 유사한 체험의 기회,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 체험 또는 재가노인수발 체험 등 노인과의 개인적인 체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및 사회복지사에게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다.

넷째, 향후 연구과제로서 측정 도구를 달리하여 이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네 가지 변수들(사회복지사의 연령·노인복지업무 담당기간·노인복지 과목이수·노인대상 실습이수)을 재측정하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와 동일한 조사방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유형별 사회복지사 또는 지역사회·국가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들 집단의 태도를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 참고 문헌

- 김매자. 1978. "노인환자에 대한 간호학생과 졸업간호원들의 태도에 관한 조사." 《중양의학》 제 34권, 제2호, pp. 179~184.
- 김은일. 1982. "노인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태도조사 연구." 《간호학회지》 제 12권, 제1호, pp. 1~12.
- 보건복지부. 1999.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 손주은. 1989. "일 병원 임상간호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송미순. 1984. "간호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제 27권, 제7호, pp. 117~125.
- 윤진·조석미. 1982. "경산 노화사실 인지척도의 구성연구." 《한국노년학》 2, pp. 5~15.
- 윤진. 1988.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I)." 《한국노년학》 7(1), pp. 63~73.
- 유지수 외. 1991. "일 대학의 노인간호학 교육효과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4, pp. 11~30.
- 최경옥. 1976. "노인간호에 대한 간호원의 태도조사연구." 《간호학회지》 6(2), pp. 1~9.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1999. 내부자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1999. 내부자료.

- 冷水豊 外. 1993. “中學生の老人觀.” 《社會老年學》 38, pp. 3~12.
- 中野いく子. 1991. “兒童の老人イメージ.” 《社會老年學》 34, pp. 23~36.
- 保坂久美子 外. 1988. “大學生の老人イメージ.” 《社會老年學》 27, pp. 22~33.
- 前田大作. 1979. “大都市青壯年の老人觀および老親に對する責任意識.” 《社會老年學》 10, pp. 3~22.
- 前田大作. 1983. “三世代の女性における老化・老人に對する態度.” 《社會老年學》 18, pp. 11~19.
- Benson, E. 1982.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 A survey of recent nursing literature.”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8(5), pp. 137~144.
- Campbell, M. E. 1971. “Study of the attitudes of nursing personnel toward the geriatric patient.” *Nursing Research*. 20(2), pp. 147~151.
- Calnan, M. F. & Hanron, J. B. 1970. “Young nurse-elderly patient.” *Nursing Outlook*. 18(12). pp. 44~46.
- Garfinkel, R. 1975. “The reluctant therapist.” *Gerontologist*. 15, pp. 136~143.
- Gillis, S. M. 1973. “Attitudes of nursing personnel toward the aged.” *Nursing Research*. 22(6). pp. 517~520.
- Kogan, N. 1961. “Attitudes toward old people : The development of a scale and an examination of correlat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pp. 44~54.
- Kogan, N. 1979. “Beliefs, attitudes and stereotypes about old people : A new look at some old issues.” *Research on Aging*. 1(1). pp. 11~36.
- Miller, R. B. & Dodder, R. A. 1980. “A revision of Palmore’s Facts on Aging Quiz.” *Gerontologist*. 20, pp. 673~679.
- Palmore, E. 1977. “Facts on aging : A short quiz.” *Gerontologist*. 17, pp. 315~320.
- Palmore, E. 1980. “The Facts on Aging Quiz : A review of findings.” *Gerontologist*. 20, pp. 669~672.
- Rankin, N. & Burggraff, V. 1983. “Aging in the '80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9(5), pp. 272~275.
- Tuckman, J. & Lorge, I. 1953. “Attitude toward old peopl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pp. 249~260.

A Study on the Social Worker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in Korea

Prof. Lee, Hye-Won
(Sung Kong Hoe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social workers' knowledge of aging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in Korea, and to find out the variables that may influence the social workers' attitude. One hundred and eighty three social workers working in a community welfare center were given the questionnaire containing the Kyung San Facts on Aging Quiz to measure the level of knowledge of aging and Yoon(1988)'s scale to find the direction of attitude toward the elder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nalyzed as follows:

- (1) The social workers' level of knowledge of aging was 65.3%, which was higher than America nurses(62.0%) and Korean nurses(65.0%).
- (2) The mean of social worker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65.5 points, which was more positive than nurses in other studies.
- (3) The social workers' levels of knowledge of aging($p < 0.001$), personal experience with the elderly($p < 0.001$), and volunteer experience for the elderly($p < 0.05$) influence the social worker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practice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making social worker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more positive are also included.